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 영향요인

이진영¹, 강문희^{2*}

¹건양대학교병원 연구간호사, ²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Influencing Factors on Intention of Career Choice toward Mental Health Nurses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Jinyoung Lee¹, Moonhee Gang^{2*}

¹Research assistant, Konyang University Hospital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D와 W 광역시 소재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 261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 ($\beta=.13, p=.048$), 정신간호학실습 만족도 ($\beta=.16, p=.035$)는 대상자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0.3%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정신간호학 실습 환경 개선과 실습지도 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키워드 : 정신건강, 대학생, 간호사, 진로선택, 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intention of career choice toward psychiatric nurses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61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five schools in D and W metropolitan c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 to 20, 2019,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6.0 program.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ge ($\beta=.13, p=.048$), satisfaction of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beta=.16, p=.035$) were significant factors on intention of career choice toward mental nurses with 10.3% of total explanatory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by improving the practice environment and clinical nursing instructors' teaching competence. In addition, an further study was proposed that can identify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the career choice of mental health nurses by expanding the subjects.

Key Words : Mental health, College student, Nurse, Intention, Related factor

*Corresponding Author : Moonhee Gang(mhgang@cnu.ac.kr)

Received November 18,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3

Revised December 22,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우리나라 만 18-79세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1], 자살은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5위, 10-30대 인구에서는 1위로 나타나[2]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은 전국에 약 2,662개가 있으며[3], 이에 종사하는 전체 정신건강 인력은 인구 10만명 당 약 27명으로 WHO에서 보고한 고소득 국가의 인력 평균 10만명당 37명보다 낮으며, 특히 간호사는 14.7명 대비 31.9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4].

간호사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신체 및 정신 질환에 대한 간호, 약물 관리 및 응급상황 판단 등을 담당한다[3]. 전체 정신건강 인력 중 간호사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세이다[4]. 최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수를 약 8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어 간호사 : 환자의 비율은 약 1:13로 보고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4~5에 비해 2-3배 많은 실정이다[5].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의 부족은 의료의 질과 환자 만족도를 저하시켜 국민의 정신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정신간호 인력의 부족은 간호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다시 간호사의 이직으로 이어지게 된다[6].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정신건강 현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신간호사의 적정 인력 확보는 필수이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간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중환자실과 성인 일반병동 등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7,8].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과 같은 부정적 태도[9,10], 정신간호학실습 스트레스[11], 실습 만족도[12], 정신간호사이미지[13,14]가 간호사의 진로 선택에 유의한 요인이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별[14], 주관적 건강상태[12], 학업성적[15]에 따라 진로 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간호사의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 진로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근접된 요인이므로[16]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와 W시 소재 5개 간호대학(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1) 4학년 남녀 간호대학생, 2) 정신간호실습 교과목을 수강한 자, 3)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이다. 연구 당시 휴학 중이거나 정신간호학실습을 수강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5로 하였을 때, 199명이 요구되었다. 약 70%의 회수율을 고려하여 설문지 285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277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미완성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총 26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정신간호사 진로선택 의도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 진로선택 의도는 “귀하는 정신간호사에 지원하시겠습니까?”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0-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Gang 등[16]의 한국형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이며,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3.3 정신간호학 실습스트레스

Bai [17]의 정신간호학 실습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3.4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

Lee [18]의 임상실습 만족도 척도 중 정신간호학교수 1인과 정신전문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실습 내용과 관련 없는 3개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3.5 정신간호사 이미지

Cho [12]가 개발한 정신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3.6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남/여), 연령(25세이상/25세미만), 전공만족도(10점 만점), 성적(상/중·하), 간호학과 지원동기(취업률/기타), 가정의 경제수준(상/중·하), 주관적 신체적 및 정신건강상태(좋다/보통·나쁘다), 본인이나 가족의 정신과 치료경험(있다/없다), 정신간호학 실습기관(정신의료기관/정신재활기관), 실습기간(2~3주/한달이상)을 포함하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C대학 IRB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본 연구 책임자는 먼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D와 W시 소재 간호대학(학과)의 학장(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보조원 2명이 연구 참여를 수락한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수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할애된 수업시

간을 활용하여 자료수집을 수행하였으며,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정신간호사 진로선택 의도,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학실습 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 만족도,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실수,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와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이 41(15.7%)명, 여학생이 220(84.3%)명이었으며, 대부분 25세 미만이었다. 대상자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115(44.1%)명으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는 신체 보다 정신건강 상태를 더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족이나 본인의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는 학생은 44(16.9%)명이었다. 정신간호학 실습 기관은 정신의료기관이 235(96.9%)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기간은 2~3주가 238(91.2%)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연구변수의 평균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07±2.9점이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평균 69.9±13.4점, 정신간호학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74.2±14.9점, 정신간호학실습 만족도는 평균 68.5±13.9점, 정신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112.5±15.3점이었다(Table 2).

3.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는 성별 ($t=-2.24, p=.025$), 연령($t=-2.32, p=.021$), 경제수준($t=-2.03, p=.042$), 주관적 신체건강상태($t=-2.44, p=.015$),

주관적 정신건강상태($t=-2.82,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61)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41	15.7
	Female	220	84.3
Age(years)	25 >	237	90.8
	25 ≤	24	9.2
Major satisfaction	Yes	241	92.3
	No	20	7.7
Grades	High ≤	59	22.6
	High >	202	77.4
Reasons for application	Job	115	44.1
	Others	146	55.9
Economic level	High	22	8.4
	High >	239	91.6
Physical health	Good	76	29.1
	Bad	185	70.9
Mental health status	Good	108	41.4
	Bad	153	58.6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ervice	Yes	44	16.9
	No	217	83.1
Practical period (weeks)	2~3	238	91.2
	4 ≤	23	8.8
Practical institution	Hospital	253	96.9
	Centers etc.	8	3.1

Table 2. Means of study variables (N=261)

Variables	M±SD
Intention of career choice mental health nurse	5.07±2.9
Mental illness attitude	69.9±13.4
Practical stress	74.2±14.9
Practical satisfaction	68.5±13.9
Image of psychiatric nurse	112.5±15.3

3.4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는 정신간호학실습 스트레스($r=-.22, p<.001$), 정신간호학실습 만족도 ($r=.26, p<.001$), 정신간호사 이미지($r=.19,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3.5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Dubin Watson 1.745, 공차한계(tolerance) 0.56~0.94, 분산팽창인자(VIF)는 1.05~1.78, 상관계수 .12~.26로 회귀분석을 위한 모든 가정을 충족하였다.

Table 3. Differences in intention of career choice mental health nurse according to demographics (N=261)

Characteristics		M±SD	t/F(p)
Gender	Male	6.00±2.90	-2.24
	Female	4.90±2.88	(.025)
Age(years)	25 >	4.94±2.90	-2.32
	25 ≤	6.38±2.70	(.021)
Major satisfaction	Yes	5.10±2.91	-.66
	No	4.65±2.85	(.263)
Grades	High ≤	4.69±2.87	1.12
	High >	5.18±2.91	(.504)
Reasons for application	Job	5.01±2.68	.29
	Others	5.12±3.08	(.767)
Economic level	High	6.27±2.84	-2.03
	High >	4.96±2.89	(.042)
Physical health	Good	5.75±2.71	-2.44
	Bad	4.79±2.94	(.015)
Mental health status	Good	5.67±2.76	-2.82
	Bad	4.65±2.94	(.005)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ervice	Yes	5.50±2.31	-1.07
	No	4.98±3.01	(.282)
Practical period (weeks)	2~3	5.00±2.87	-1.15
	4 ≤	5.74±3.20	(.248)
Type of practical institution	Hospital	5.13±2.90	-1.80
	Centers etc.	3.25±2.71	(.073)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61)

Variables	Intention
	r (p)
Mental illness attitude	-.12(.051)
Practical stress	-.22 (p<.001)
Practical satisfaction	.26 (p<.001)
Image of psychiatric nurse	.19 (p<.001)

Table 5. Factors on intention of career choice (N=261)

Variable	β	t	p
Constant		3.10	.002
Gender (M=1)	.05	.83	.402
Age (year)	.13	1.98	.048
Economic level (High=1)	.09	1.42	.156
Mental health (Good=1)	.10	1.64	.101
Mental illness attitude	-.04	-.57	.566
Practical stress	.08	-1.00	.316
Practical satisfaction	.16	-2.12	.035
Image of psychiatric nurse	.07	1.02	.308

Adj R²=.103, F(p) = 4.71(<.001)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연령($\beta=.13, p=.048$)과 정신간호학실습 만족도($\beta=.16, p=.035$)는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71, p<.001$), 이 두 변수는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에 대해

약 10.3%의 설명력을 보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정신간호사의 적정 인력 수급 및 정신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는 10점 만점에 5.07점으로 중간수준이었다. 이는 100%로 환산하였을 때, 50.7% 수준으로 도구는 다르나 간호대학생의 정신과 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Cho [12]의 연구에서 21.0%와 An [19]의 연구에서 25.0% 보다 높다. 하지만 Cho [12]의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An [19]과 본 연구에서는 졸업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학년에 따라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과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im & Ha & Jun [20]의 신규 정신간호사들이 정신간호학 수업과 실습에서 흥미를 느껴, 정신간호사를 선택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에게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를 묻는 것은 정신간호사의 부족 문제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Ronka & Pulkkinen [21]은 진로 준비가 빠를수록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확률이 높고, Lee & Lee [22]는 진로준비 행동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이직률 감소와 현실 적응력이 향상된다 하였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을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간호학 수업 및 실습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령은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확인되었다. 25세 미만 보다 25세 이상 연령군에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수행된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령의 영향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라 졸업 후 정신간호 경력에 대한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Happell & Gaskin [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 태도의 성숙도와 진로 정체성이 높고[23], 같은 4학년이지만 23세에 비해 24-27세의 연령에서 정신간호에 대한 실습 부담과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이 유의하게 낮아 차이가 있었다 [1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은 학년 뿐 아니라 연령의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증진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는 정신간호사 진로 선택 의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Moon & Cho [24]의 임상실습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탄력성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공과 학교생활의 만족이 진로결정 수준을 높인다하였는데, 임상실습은 전공과 학교 수업의 일부분이므로 정신간호학 실습만족이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 선택 의도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m [25]의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가 정신간호사 진로선택의도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며[26],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임상현장에서의 직무만족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27].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간호학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학 실습스트레스와 정신간호사이미지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진로선택에 대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태도[9-10]와 간호사 이미지 [13,14]를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변수들간의 매개와 조절효과 등 심화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요

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년을 대상으로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현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교육과 실무에 대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2개 도시에 위치한 5개 간호대학의 학생을 선정하였고,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간호대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추후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의 적용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련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사에 대한 진로선택 의도 영향요인은 연령과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실습의 다양화와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National Mental Helath Center (2021).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2021. http://www.ncmh.go.kr/ncmh/board/commonView.do?fno=15&no=3765&menu_cd=01_03&bn=newsView
- [2] Statistics Korea (2022). Cause of Death Statistics.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orgId=101&confmNo=101054&kosisYn=Y> 2021. 6. 16.
- [3] Ministry of Helath and Welfare (2022). Public Mental Health Guidebook 2022.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_T_SEQ=371170
- [4] S. H. Lee (2020). The Mental Health Workforce in Korea: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4, 43-54.
- [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 OECD Health Statistics Retrieved May 13, 2019, from <http://stats.oecd.org>.
- [6] Park, J. U.(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7] B. Happell & C. J. Gaskin (2013). The Attitud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Mental Health Nursing: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2, 148-158. DOI : 10.1111/jocn.12022
- [8] K. S. Bang & J. K. Jo (2008).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ety Nursing Education, 14(1), 88-97.
- [9] L. J. Surgenor, J. Dunn, & J. Horn (2005). Nursing Student Attitudes to Psychiatric Nursing and Psychiatric Disorders in New Zea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4, 103-108.
- [10] M. K. Kang & Y. K. Lee (2014). Related Factors to Attitude and Conception of Community toward the Mental Illnes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291-298. DOI : 10.5762/KAIS.2014.15.1.291
- [11] R. Jansen (2015). Psychiatric Nursing: Unpopular Choice.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 142-148. DOI : 10.1111/jpm.12138
- [12] Y. H. Cho (2018). Effects of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 on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371-378.
- [13] K. S. Jung & H. O. Ju (2015).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 Journal of Muscle of Health, 22(3), 177-184. DOI : 0.5953/JMJH.2015.22.3.177
- [14] Roth, J. E & Coleman. C. L. (2008). Perceived and Barriers for Men Entering Nursing: Implications for Gender Diversity. Journal of Culture Diversity, 15(3), 148-152.
- [15] M. O. Chae (2019).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29-238.
DOI : 10.14400/JDC.2019.17.4.229
- [16] M. H. Gang & J. H. Lee (2017). Influencing Factors on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in Korean and Immigrant 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344-353.
- [17] J. Y. Bai (1999). A study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2), 411-423.
- [18] S. H. Lee &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0(2), 219-231.
- [19] H. N. An. (2004). A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Experience in Psychiatric War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20] M. Y. Kim & S. J. Ha & S. S. Jeon (2018). The Clinical Experience of Adaption as Novice Psychiatric Nurses in Hospital. Global Health Nursing, 8(1), 17-28.
- [21] A. Ronka & L. Pulkkinen (1995).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0), 381-391.
- [22] S. G. Lee & J. K. Lee (2008).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1(3), 1-25.
- [23] I. S. Park & Y. J. Han (2017).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ourse Satisfaction for the Course-maturity, Progress sense, Stress Handling and Major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on employment path to employment. 7(1), 145-167.
- [24] K. J. Moon & E. J. Jo (2017). Exploring Correlat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cs, 42(2), 217-135.
DOI : 10.21032/jhis.2017.42.2.127
- [25] J. A. Kim (2013).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4), 339-349.
- [26] K. M. Lim & E. J. Ch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666.
- [27] H. K. Yoon, J. H. Choi, H. Y. Lee, M. J. Park (2013).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e Administration, 19(5), 658-667.
DOI : 10.11111/jkana.2013.19.5.658

강 문 희(Moonhee Gang)

[정회원]



- 199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정신간호학박사)
- 2010년 8월~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자살예방
- E-Mail : mhgang@cnu.ac.kr

이 진 영(Jinyoung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2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3년 2월~현재 : 건양대학교병원 연구간호사

- 관심분야 : 경영, 마케팅
- E-Mail : white098@hanmail.net